

지난 3 월 발표된 머로우 소달리의 연례 기관투자자 설문조사([Institutional Investor survey](#))에 따르면 26 조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 중인 기관투자자들이 지난 12 개월간 그들의 투자 의사결정에서 ESG 관련 위험과 기회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.

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ESG 개념이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주관여활동을 수행하는 등 수탁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방식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. 2020 년 1 월에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는 총 26 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중인 41 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응답했다.

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기업의 지배구조가 부실한 경우 투자자들은 행동주의자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행동주의자가 제안한 사업 전략의 신뢰성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다.
- 투자자 중 압도적인 대다수가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가 어떻게 재무적인 위험 및 기회와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, 회사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.
- 투자자들은 2020 년 관여활동에서 중점을 두게 될 지속가능성 주제로, 기후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인적자원관리가 뒤를 이었다.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하여, 투자자들은 보건안전 지표의 공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, 이사회가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기업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을 보였다.
- 투자자들은 기업 목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해관계자 관여 방식과 그 결과가 기업의 보고/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.
- 채권투자의사결정에서 ESG 와 지속가능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신용평가기관 뿐만 아니라 ESG 평가기관들도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.